

## 지출 효율화로 재원 마련, 국정과제 등에 재투자

- 관행적·낭비성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 의견 수렴·적극 반영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7.15(화))의 후속 조치로 7.16(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 : 기재부(제2차관 주재),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과기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 < 지출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말씀(7.15, 국무회의) >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5.7.15(화)부터 7.25(금)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계획이다.

담당 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130)
		담당자	사무관 김유현 (janes0425@korea.kr)

